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낮예배 시간에는 임예우 어린이(임병진·조 에스더 집사)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3. 2018년도 우리 교회 달력이 본당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신년 '약속의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은 예배 후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점심식사 후에는 교회 안과 바깥 로비에 설치된 성탄절 트리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 낮예배 기도담당은 김환영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는 유숙정 권사님입니다.
6.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1월 28일
예배기도(오전)	오승현 집사	이준화 집사	김환영 집사	박성대 집사
예배기도(오후)	김금옥 권사	황희용 권사	유숙정 권사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오효근 집사 조선경 집사 금재구 집사	최순애 집사 이명희 집사 김화현 집사	신경미 권사 배은희 집사 차미자 집사	김경미 집사 이승미 집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1/6)	주사랑목장(1/13)	에덴목장(1/20)	갈렘목장(1/27)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새롭게 임직을 받는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준비되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94번(새해) 다같이
*경배찬송	44장(통 56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285장(통 209장) 다같이
대표기도	이준화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갈 6:7-9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심으면 거둡니다' 허영진 목사

유아세례식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단
의
말씀
읽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장 17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전도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538장(통 327장)	다같이
기도	황희용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눅 3:7-9	다같이
말씀선포	'회개에 합당한 열매'	허영전도사
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218장(통 369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6:1-15 '오병이어'(5)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7)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63:1-11 '주를 기억하며'(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비트코인 광풍'

지난 주간, 혹한의 날씨와 때맞추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통화,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된서리를 맞았다. 암호화폐가 투기판으로 변하면서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급기야 정부도 잇따라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는 거래소마저 폐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형세다. 하지만 그 열풍은 쉽게 식을 기세가 아니다. 이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20~30대 청년 세대였다.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가 나오자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몰려가 항의 글을 올렸고,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서명했다. 지금도 진행 중이며 무려 14만 명이 참여했다. 이는 청와대 역대 청원 2위에 오르는 수치다. 그럴만한 것이 전체 가상화폐 투자자의 60%인 180만 명이 20~30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열풍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인가.

2009년 1월 3일,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은 지 정확하게 9년. 처음엔 소수 컴퓨터광의 장난감쯤으로 치부되던 암호화폐는 이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열풍의 대상이 되었다. 이 욕망의 시장에 다른 이들의 욕망이 보태졌기 때문이라. 앞서 언급한 청년들 집단 반발의 이면엔 우리 사회에서 희망이 안 보인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가 "마지막 희망"이라며 "처음으로 가져본 꿈을 빼앗지 말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 자신도 잘살 수 있을 거란 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짝 막힌 현실에서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암호화폐가 자신을 구원해줄 "인생의 동아줄"로 등장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펼치시는 '거룩한 게임'을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결코 확률이 아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고독하게 끝까지 사랑의 규칙을 갖고 피 흘려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의 규칙'을 몇 번이나 어기고 싶으셨겠지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수많은 핍박을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그 길로 가야 한다.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혹자는 부질없는 거품과 소동으로 치부하고, 혹자는 IT와 미래 금융이 만나기 위한 통과리레라고 본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르겠다. 그 확인은 각자의 몫이다. 다만 대박을 꿈꾸는 비정상적 '확률 게임'을 버리고, 오히려 힘들수록 미래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이다.

Written by 허영진